

로마서 묵상 20
(12/31/2020, 목)

찬양: 197(178)(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로마서 4:1-8

말씀에 대한 이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신칭의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특히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그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 1-3 절 -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니라 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이라는 말씀은 아브라함과 유대인들과의 혈연관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신들과 동일한 혈통이자 조상인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어떤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상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언급합니다(2 절). 그는 3 절의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주장하며 창 15:6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창 15:6 -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전 묵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바울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를 통한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것을 구원의 조건과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원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4-5 절 - 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삯은 일의 댓가라는 말은, 만약 인간이 율법준수와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댓가를 받은 것이며, 자랑할만하며,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삯을 받는 경우와 같이, 경건하지 않고 아무 공로도 없는 데도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이신칭의의 원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다시 발견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건짐받고, 은혜로 용서받고, 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은혜받은 성도는 아무 것도 내어 놓을 것 없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죄인도 불러 주시고, 부족해도 용납해 주시며, 오갈데 없는 영적 고아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받은 자는 복되다. 6-8 절 - 6. 일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바울은 7-8 절에서 다윗의 시편 32:1-2 을 인용하면서,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복된 것임을 증거합니다. 시 32:1-2 - 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2.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구절들에서 선포하는 복은 은혜로 인한 복이며, 구원받음의 복입니다. 이 은혜와 복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복과 은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얻는 영생복락은 예수님의 죽음과 바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로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는 반드시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받은 대로 행하며, 나의 이기적 욕심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론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할 때, 인간적인 모든 교만과 자량을 내려 놓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그 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신칭의의 원리 속에 담긴 구원론은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알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까지 새롭게 바꾸게 합니다. 은혜받고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매순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히 4:16 -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올 한 해도 삶의 모든 부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환난과 풍파가 많았던 2020 년이었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사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공급하신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물 없는 사막에 물을 내어 주시며,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빛을 내셔서 보게 하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과 은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순간 이 모습으로 서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2021 년에도 변함없이 주실 그 은혜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뜻에 보다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십니다. 2020 년 마지막 날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보다 건강하고 주님의 비전과 기쁨으로 가득찬 2021 년 새해를 맞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깊이 깨달으며, 오늘도 은혜받은 자, 은혜에 빚진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올 한 해 주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해 마지막 남은 하루를 성찰과 회개함으로 보내면서, 보다 거룩하고 성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새 해가 되길 기도하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3. 전염병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연구팀들,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지혜의 역사, 영육의 강건함과 소망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